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1	09. 18	09. 25
대 표 기 도	장래황 성도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성 경 봉 독	장래황 성도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9월 축복인사 - 예배 드리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창세기 묵상 - 말씀방에서 창세기를 묵상 중에 있습니다. 초심의 열정으로 참여해주세요.
3. 추석(10일) -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부모님께 안부전하세요.
4. 비대면 예배가 종료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복자 권사
새 교우	최종열, 이윤선(다빈, 다엘) 가정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구제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8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6 : 13 - 17(구p8) 정용현 안수집사
(1.Mose 6:13-17)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말씀을 들으세요!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장래황 성도

†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왼쪽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람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명령이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른 보기에는 죽는 길 같으나 실상은 사는 길이에요, 사람의 뜻은 사는 길 같으나 실상은 죽는, 망하는 길입니다.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죽는 길, 망하는 길 같았습니다. 그러나 복종하자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입었고 외아들 이삭도 살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반대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내던져져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십시오. 어느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마음을 쓰지 말며,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면 초자연적인 영적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영성 생활의 향기 / 엄두섭 목사
(은성수도원 설립)

* 하나님과 함께 하면 철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미줄도 철벽 같다. - 프에릿 구느 -